



도망쳐 왔던 길을 조심스레 돌아갔다.
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.



머취

글 · 그림
 생각네트워크



머취

글 · 그림 생각네트워크







발행 2022년 11월 04일

지은이 생각네트워크 (구은복 백혜란 이현석 유동아 최자옥 황진희)

검토 문영란 박기철 안지희 최필웅

펴낸곳 경상남도교육청

주소 (51430)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

전화 055-268-1100

ISBN 979-11-85350-27-1 (77810)

- 종이에 베이거나 굽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
- 책 모서리가 날카로우니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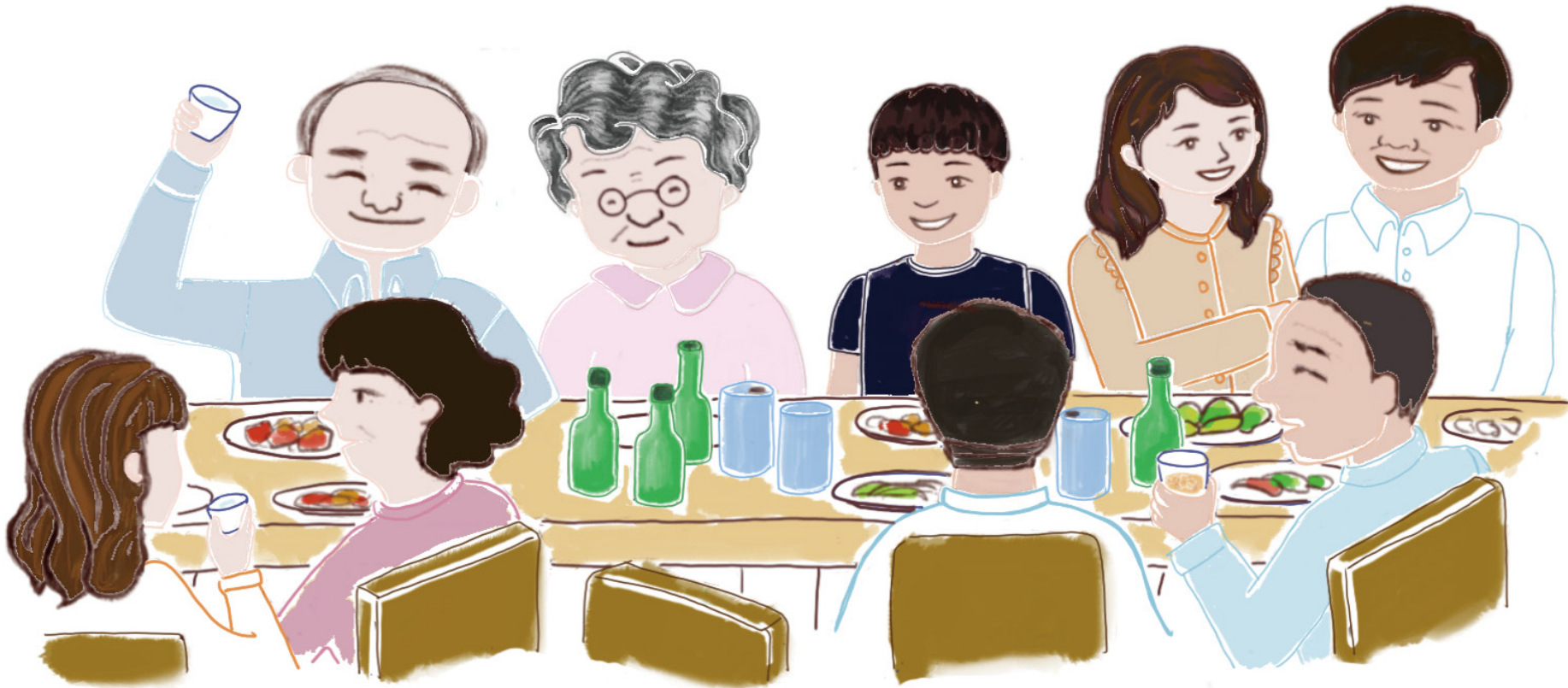


글 • 그림 생각네트워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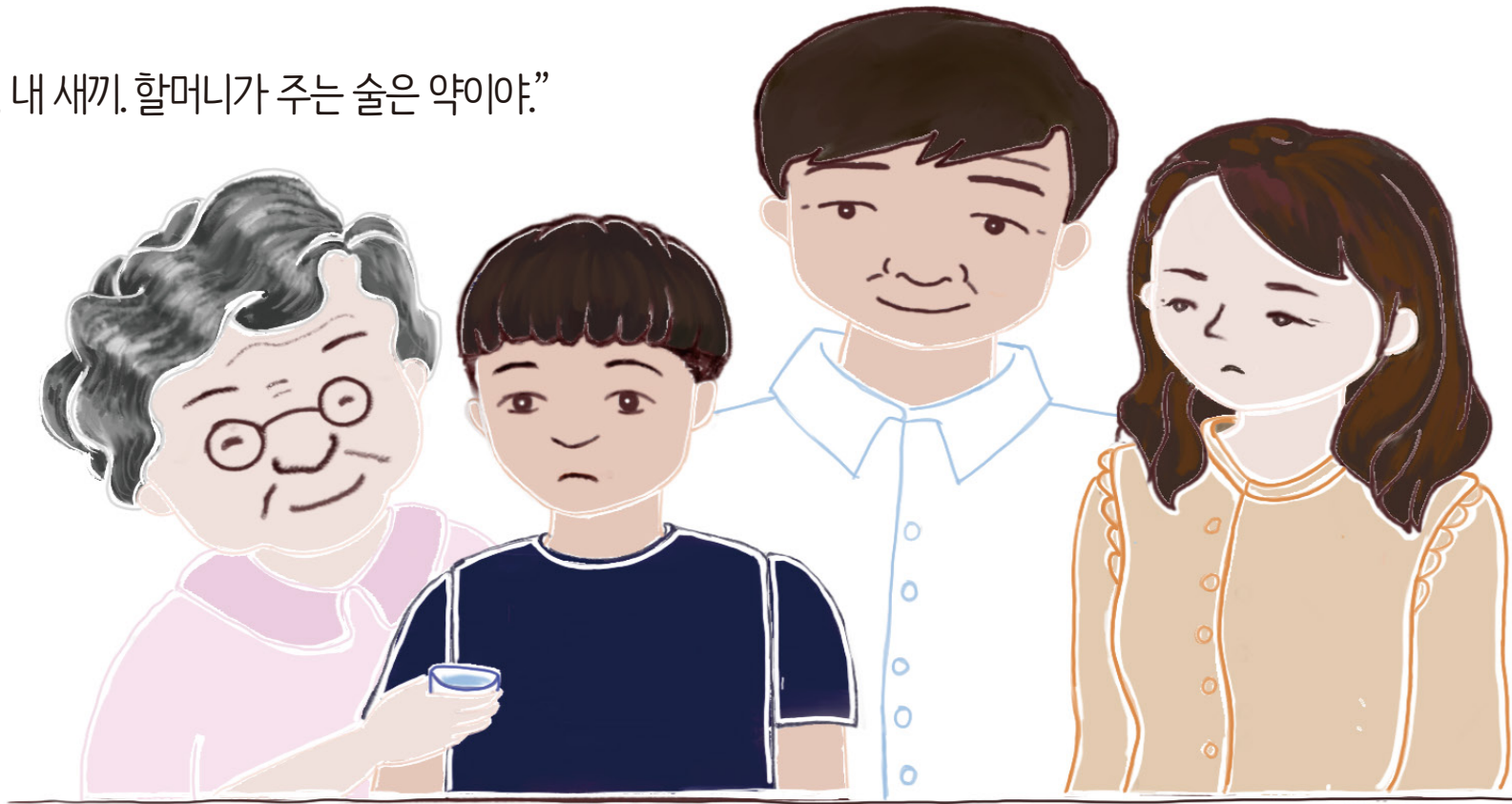
오늘은 할머니의 칠순 잔치날이다.

최옥자 여사 칠순잔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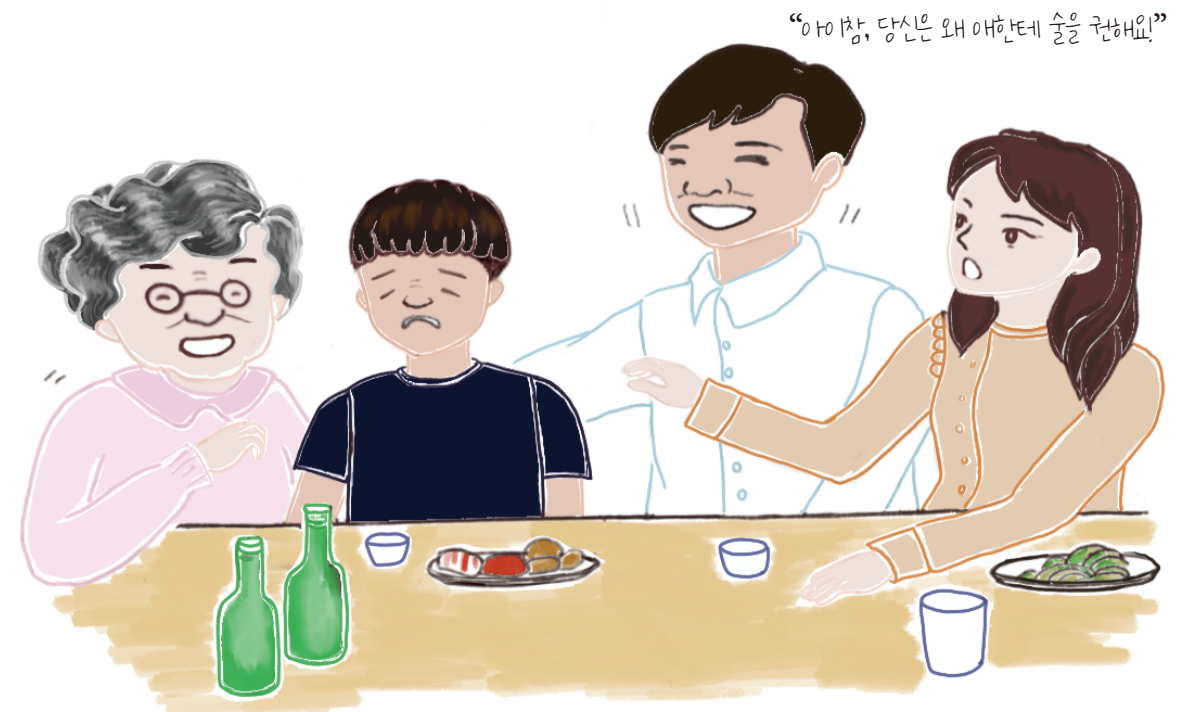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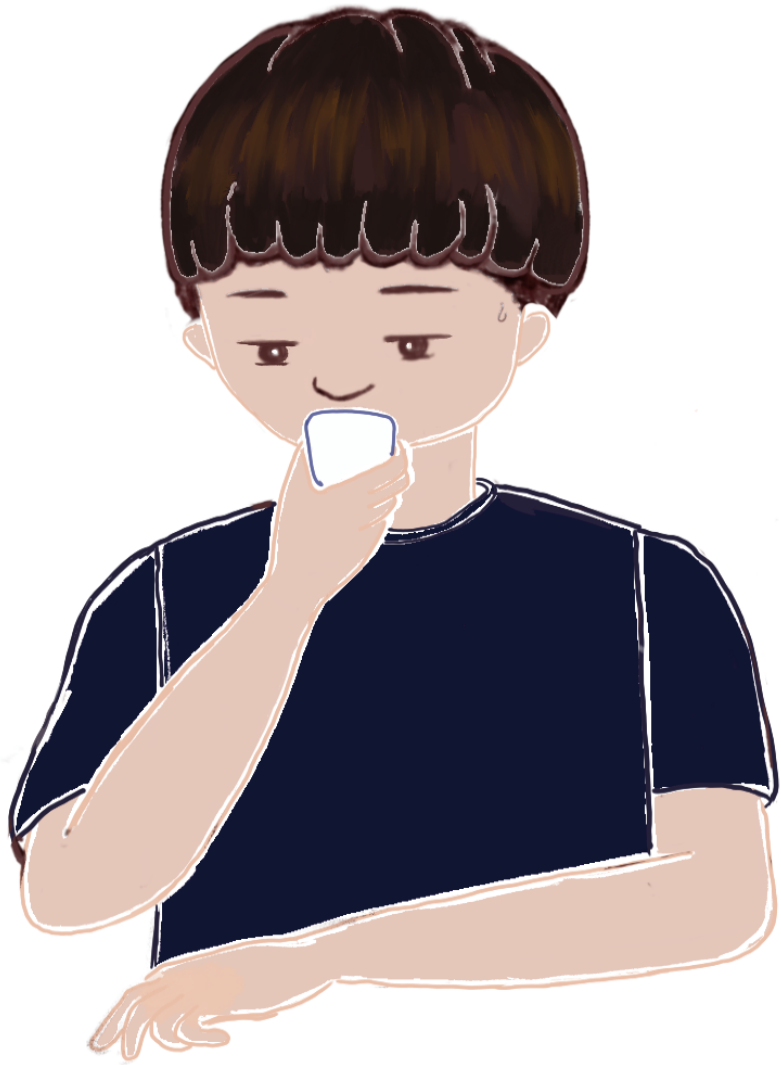
“그래,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.”

“아이고, 내 새끼. 할머니가 주는 술은 약이야.”



“으···. 이걸 왜 마셔요?”

내 한 마디에 어른들이 깔깔 웃는다.





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.

“크.... 이 맛이야!”
친구의 센 척에 나도 술을 벌컥 들이마셨다.



술을 마실수록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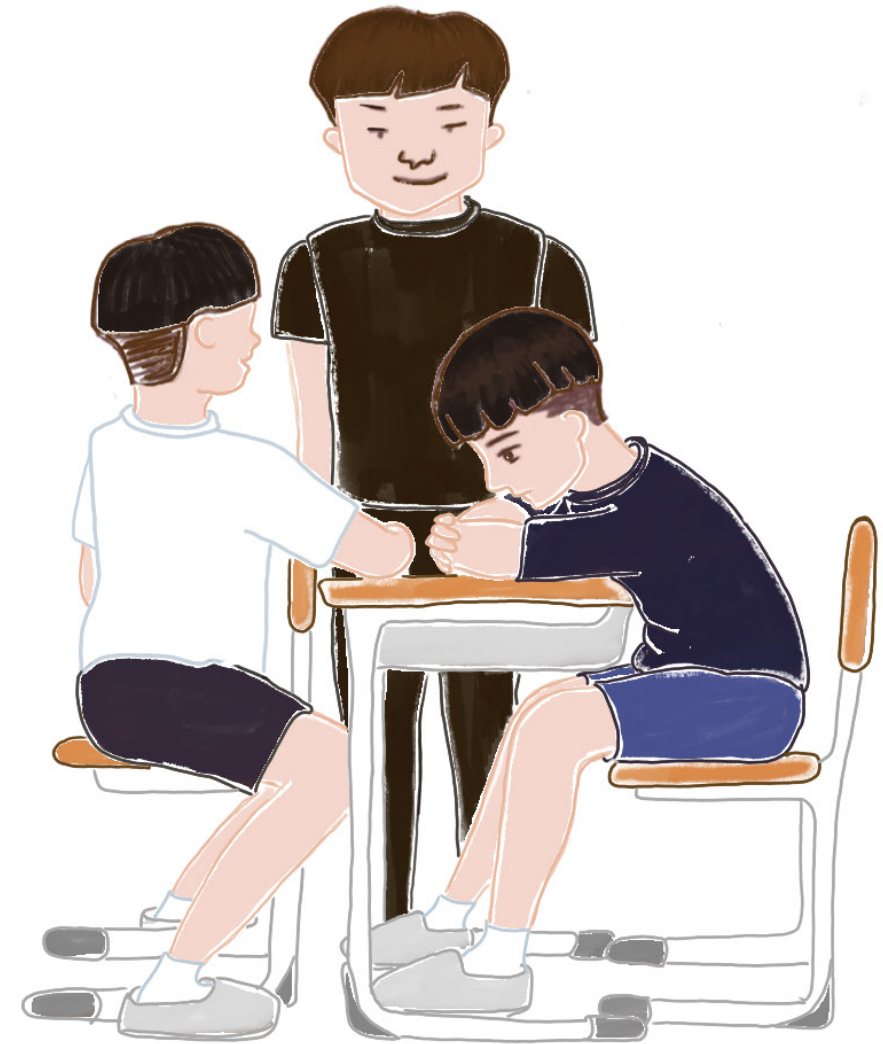
“태현아, 우리 가고 나서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?”

“응, 엄마 아빠는 우리가 술 마신 거 모르는 것 같아.”

술을 마신 뒤로 머리가 계속 지끈거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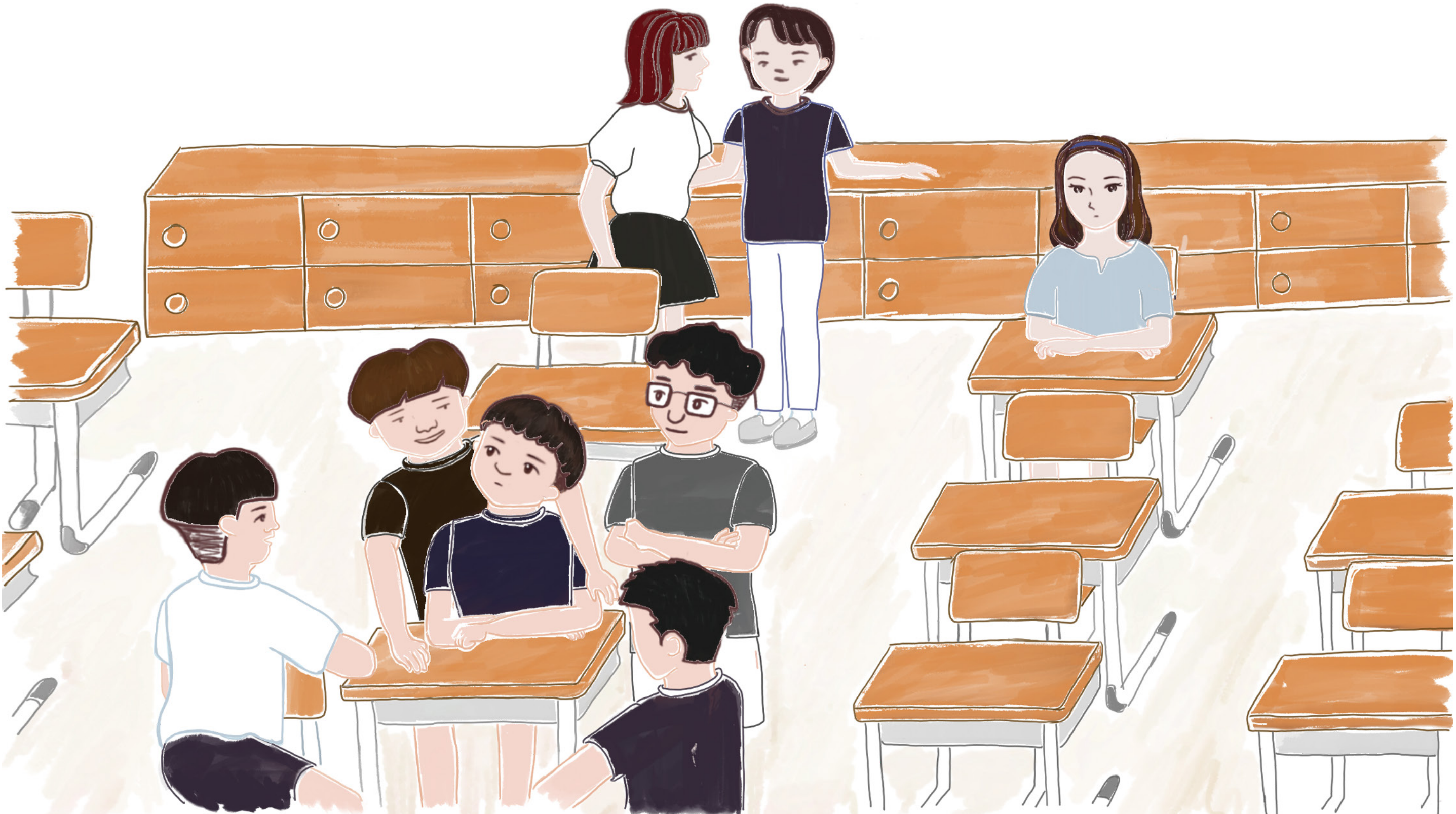


“우리 어제 태현이 집에서 재미있었지?”



어젯밤 술 이야기에 아이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든다.
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다.

채윤이의 시선도 느껴졌다.



“태현아 다음에 또 너희 집에서 마실까?”

“.....”





좋아요 32개
 시험기간에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찰칵><
 다음주에 또 놀러가자!
 #맛집 #친구 #우정 #카페 #여행
 #시험기간에 #공부싫어



cheyun 외 52명이 좋아합니다.
 taehyeon 예쁜 채윤이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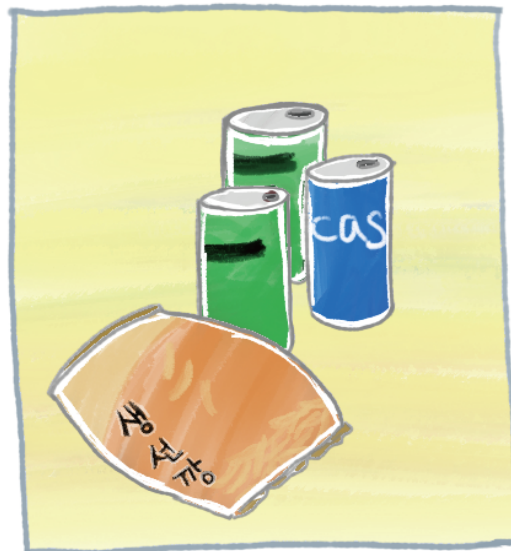
둘이 왜 이려고 찍었지?
 기억이 안난다.
 #친구들 #난장판 #이불킥각 #술 #팔라
 10일전



좋아요 12개
 #거울샷 #잘생김 #휴대폰바꾸고싶다.



역시 몰래 먹는 술이 맛있어!
 #술 #일상 #연원한우정 #친구 #끝까지가자!



kim_sangyun 외 39명이 좋아합니다.



좋아요 20개
 taehyeon #코노 #술김에...더보기

술 마시는 사진이 SNS에 계속 올라온다.



“배 안고파? 치킨 먹을까?”

“치킨에는 맥주라던데?”

“그럼 치맥 어때?”

“어디야? 나 기다리고 있는데.”



"미안, 깜빡했어. 지금 못 가."

"뭐라고? 어제 저녁에는 아무 말 없었잖아.
진짜 실망이다. 김태현!"





이상하게 즐겁지가 않다.
나만 그런걸까?

“나 일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. 미안.”
“야! 갑자기 어디 가? 조금 더 마셔야지!”

채운이를 향해 무작정 달렸다.



갑자기 무언가 눈 앞에 나타났다.
핸들을 꺾어야 하는데,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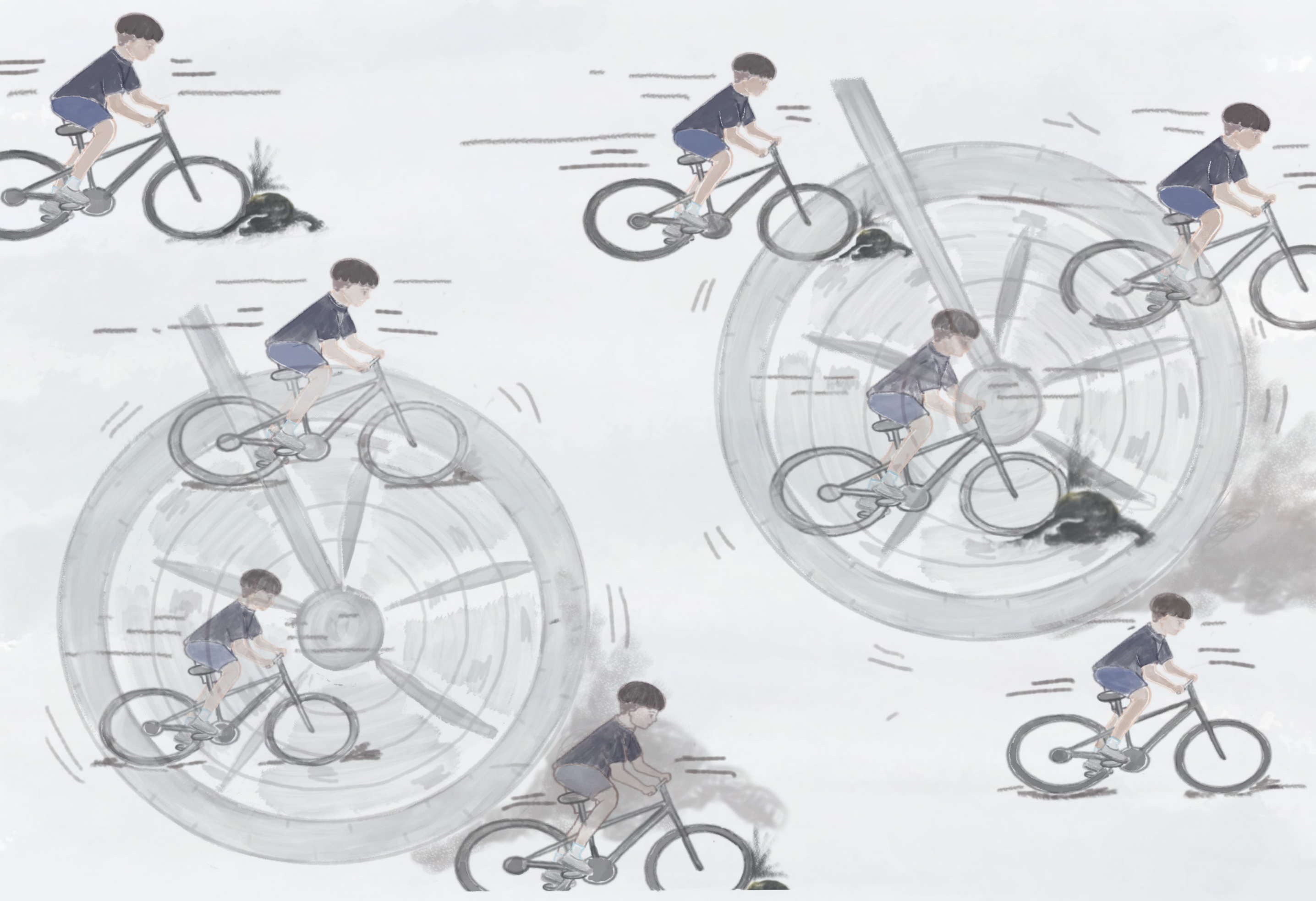


‘뭐가 부딪친 거지?’



채윤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.
'아까 밟고 지나간 건 대체 뭐지?'





도망쳐 왔던 길을 조심스레 돌아갔다.



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.

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가섰다.
찌그러진 캔이 검은 봉지를 비집고 나와 있다.

‘휴.... 다행이다.’



그런데 어쩌면....
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.

